

다산포럼

여성 독립 존재



유지나 동국대학교·영화평론가

계절의 변화는 놀라운 자연의 축복이다. 무거운 코트를 벗고 봄바람 스치는 가벼운 차림으로 거리를 나서면 하루하루 새로움을 느끼게 된다. 봄바람과 함께 부는 미투운동 바람은 오랫동안 침묵의 카르텔로 봉인해 왔던 풀아 터진 권력의 민낯을 보여 준다.

한때 대중음악에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애달프게 이별 노래를 불렀지만, 이젠 여자도 배가 되어 자신의 인생 여정 항해를 해야 하는 21세기 세상이 아니던가. ‘여자 팔자는 뒤옹박’이라는 옛말도 미풍 양속이 아니라 여성 인권이 부재했던 시대의 의존적 여성관을 보여줄 뿐이다. 자신의 인생을 구해 줄 남자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기 인생길을 가는 밀레니엄 세대 여성은 지구촌 어느 곳으로건 자유롭게 날아가는 메시지를 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는 단독 주체로 살아간다.

그런 미투 바람 속에 등장한 한 정치인의 어법은 조선 왕정 시대, 수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통치했던 군주의 페르소나를 쓴 인물의 대사처럼 들린다. “네 의견을 달지 말라”, “(너는) 날 비추는 거울이다”, “그림자처럼 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하건) “괘념치 말아라”

이런 지시에 따르면 군신일체의 화신으로 그를 우러러보며 모셔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얼굴 자체를 볼 수 없는 인간에게 거울은 자신을 타자화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자기 성찰의 도구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의 물리적 존재 증명인 그림자는, 용의 심리학적 맥락에서 보면, 본인도 모르는 자아의 또 다른 어두운 분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누군가에게 자신의 거울과 그림자가 되라고 명하는 것은 자아 콤플렉스의 어두운 측면을 부자불식간에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마치 역사극에서 고뇌에 찬 왕이 울조리듯이 뱀어 내는 ‘괘념치 말아라’의 ‘하계체’는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코스프레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압축 발전을 이룬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 공존하는 봉건적 구대의 열룩을 확대경으로 보여 주는 것만 같다. 이런 비동시성의 동시성은 남성에게 대어 자신의 인생을 풀어 가려는 멜로드라마 여성 캐릭터의 트라우마로 재현되기도 한다. 한국적 가부장제가 옥박하는 현모양처 상을 반영해 온 멜로드라마는 ‘미몽’(1936, 양주남)과 ‘자유부인’(1969, 한형모)에서 바람난 유부녀의 현모양처

콤플렉스를 비장하게 다루고 파국적 결말로 나아간다. 급변하는 세상 속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식민지는 여성’이라는 문구처럼, 현실적 여성상을 미풍 양속으로 미화하는 허구적 전통을 수행해 온 셈이다. 그 전통은 밀레니엄시대 들어 영화에서도 깨져 나가기 시작한다.

이정중의 단편소설 ‘벌레이야기’를 각색한 ‘밀양’(2007, 이창동)은 주인공 신애 캐릭터를 자기기만적 현모양처 판타지로 풀어내 보인다. 남편이 사망하자 수절하며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해 아들 잘 기르며 살겠다고 각오한 신애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살아가는 현대여성이면서 조선시대 열녀 정신을 이어가는 전통적 여성상이다. 그러나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남편의 불륜을 의도적으로 망각한 척 하는 신애 내면의 진한 그림자와 더불어 부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유괴범에게 납치당한 아들의 죽음을 맞는 참사가 벌어진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전통적 구대와 현대적 능력을 과시하는 신애의 이중성은 유괴범의 이중성에 충격을 받는다. 자기 거짓에 치여 홀로된 신애는 신앙생활로 다시 삶의 활력을 얻어 유괴 살인범을 용서하러 감옥으로 면회를 간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에 신애의 용서가 필요 없다는 고백에 충격을 받고 졸도한다. 이 영화를 봤던 것일까? 미투 파장의 물꼬를 튼 서 검사의 가

해자 안 전 국장의 신앙 간증은 놀랍도록 이 상황과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촛불 혁명 이후 한국 독립영화에도 오랜만에 당당한 독립 여성이 탄생했다. ‘소공녀’(2017, 전고은)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률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N포세대의 일상적 풍경을 절묘하게 그려낸다.

주인공 미소는 이름처럼 타인에게 소소한 일상의 미소를 짓게 하는 독립적 존재이다. 학비가 없어 대학을 중퇴하고 가사도우미로 살아가는 미소는 소우보다 존재를 택하며 자유로운 인생 여행 자체를 실천한다. 남들은 집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미소는 살아가는 현대여성이면서 조선시대 열녀 출신 함복인 월세방을 뺀다.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라는 포스터 헤드 카피처럼 ‘인생은 나그네길’ 자체를 실천한다. 그 여행길에서 미소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과 담배, 그리고 남친과 가까운 데이트를 즐기려 현월 알미를 하기도 한다.

한때 음악밴드를 같이 했던 멤버들의 집에 계란 한판을 들고 찾아가 동거시켜 가숙하며 그가 목격하는 친구들의 일상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갈림길을 성찰하게 해 준다. 바로 그 길에서 21세기 여성 미소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눈치 보며 뒤옹박 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당당하게 자기 트렁크를 끌고 인생 여정에 들어선 모습은 시대와 세대의 변화 바람을 맛보게 해 준다.

社說

민주 경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결선투표제’

6·13 지방선거의 최종 경선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예비 후보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한 뒤 1차 경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공천 방식을 발표했다. 하지만 2차 경선이 결선투표가 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비권리당원 50%’란 경선 방식에 근거하지만 여론조사로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경선 실시를 결정하면, 1차 경선 당선자는 또다시 경선에 임해야 한다.

벌써부터 불꽃 튀는 경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선 투표제 도입 여부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컷오프를 통해 3명으로, 전남지사의 경우 2명으로 각각의 핵심 제한한 데 대해 정의당이 지난 주 전국위원회를 열어 협상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향후 협상에선 공동 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압축 모 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원월’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첫 원내대표를 어느 정당에서 가져갈지, 임기를 어

최대 변수는 결선 투표제 도입 여부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이 1차 경선에서 바로 과반 득표를 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후보자 간에 연대나 밀어주기 등이 이뤄지면서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컷오프 이후 치러진 1차 경선 결과 1.2,3위의 순위가 2차 결선 투표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민행배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중앙당과 예비후보들에게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의 주장이 아니라라도 결선투표제는 유권자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민의를 제대로 수립하기 힘든 단순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고 사표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선거 지역별 단수공천 여부 및 경선 방식, 일정 등을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된다.

평화·정의당 공동 교섭단체 실험 기대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양당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국회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절반씩 균형을 이룬 4개 교섭단체 체제로 바뀌게 되며, 광주·전남 지방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늘 국회에서 ‘3+3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공동 교섭단체 구성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초 평화당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정의당이 지난 주 전국위원회를 열어 협상에 나서기로 결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향후 협상에선 공동 교섭단체를 대표할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압축 모두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원월’이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첫 원내대표를 어느 정당에서 가져갈지, 임기를 어

느 정도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당이 합의에 성공하면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공동 교섭단체 구성 시 참여하기로 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합쳐 21석의 새로운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이 경우 양당은 원내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해 교섭력을 높일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권한과 발언권을 키울 수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당제 체제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외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청춘 특·특

설레는 대학 새내기들에게



최화진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2학년

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한다.

좋은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활동을 위해 준비할 것도 많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공부는 전공 서적과 도서관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로 나가는 관문인 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일이다.

나는 새내기 시절 대학에서 ‘글로벌 버디’ 활동을 통해 교환 학생 친구와 교류하며 새로운 문화를 접했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법을 배웠으며, 외국인 친구를 사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 또한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서머캠프 동기와 친해지게 됐다.

물론 모든 과정이 즐겁지만은 않았다. 열심히 준비했던 해외 전공 연수 프로그램

은 최종 선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준비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또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여행과 독서도 권하고 싶다.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이고, 독서는 머리로 하는 여행이라는 말이 있다. 일상에 치여 사색할 여유가 없는 현대인에게 여행은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을 준다. 낯선 곳에서 마음을 열고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독서는 평생 가져가야 할 습관이다. 하루에 30분씩 독서하면 한 달에 3권, 1년에 36권, 10년이면 360권을 읽게 된다. 책 360권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와 달리 모든 걸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하여 두려움을 갖는 새내기들도 있을 것이다. 정보를 찾는 데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당장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만 봐도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한다. 학교 밖으로 눈을 돌린다면 셀 수 없는 활동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

만 대학에서는 자신이 직접 활동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아직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가장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로 대학 홈페이지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다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의 정보를 한눈에 찾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서는 각종 대외 활동 정보를 정리해주는 페이지가 많다. 또한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니 관심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페이지를 팔로우하는 것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필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값지다고 생각한다. 새내기들이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텅 빈 포인트를 찾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기 고

남도에서 한국 경영학의 뿌리 찾기

- 삼남경영학자상 수상에 부처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전남대 명예교수

그렇지만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 자본주의 그늘에서 성장해 온지라 경영학도 미국학풍의 일반도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선진 경영학이나 기업이 우리 가치관이나 문화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 규모가 커가고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경영 노하우를 찾아 나서면서 필자는 일찍이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실사구시를 지향하면서 많은 책들을 저술했다. 이들의 학문적 업적들을 살펴볼 때, 실학을 한국적 경영학의 원류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고장 남도에서 유배생활을 보낸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 실학을 대표하는 분이다. 18년 동안 많은 역적을 남겼는데, 강진은 그 덕분에 공무원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다산학 공부를 위해 다녀가는 명소가 됐다. 다산수련원 앞마당에 ‘기록하기를 좋아하라’, ‘동토기 전에 일어나라’라고 적은 다산의 말씀비가 있는데, 아마도 새벽같이 일어나 부단히 매

모하는 과정에서 목민심서와 같은 노작을 만들었을 것이다.

남도에는 장흥의 위백규와 화순의 하백원 등 걸출한 실학자들이 있다. 필자는 몇년 전 규남 하백원의 생애와 업적을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하백원 선생이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 시조와 서간문 등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윤리 경영, 독서 경영, 혁신 경영, 실천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매우 자랑스러웠다.

문득 독일 문호 괴테의 명언이 떠오른다. 괴테는 “학문의 역사는 학문 그 자체”라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면 경영학의 역사는 경영학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더 나아가 한국 경영학도 기업사, 기업가사 연구에서 우리는 경영학을 제대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오래 전 필자는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열린 한일 경영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때 한 일본 교수는 필자에게 물었다.

“일본의 전통 상인으로 오사카 상인, 교토 상인이 있는데 한국은 어떤 상인이 있느냐” 그의 물음에 개성 상인, 의주 상인, 동래 상인을 들먹이다가 문득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상인들이 있었는지 의문이 생겼다. 귀국하자마자 찾기 시작해 발굴한 상인이 바로 병영 상인이었다. “북에는 송상(松上), 남에는 병상(兵商)”이라는 말이 당시 회자될 정도였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 소재로는 충분했다. 더욱이 600년 역사의 병영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상인이었기에, 필자가 학회에 발표된 병영 상인은 국내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됐다.

마침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그래서 한국경영학회 회장인 필자는 춘계학술대회를 천년에도 나누어서 개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개국의 방방곡곡에서 모여 든 경영학자들이 우리 고장에 와서 한국적 경영학을 위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필자는 남은 세월, 앞으로도 한국적 경영학의 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경영학자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계속해 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삼남경영학자상의 제정자, I.G 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이께 수상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無 等 鼓

‘행그리’(Hangry)란 단어가 있다. ‘배고프다’(飢餓, hungry)와 ‘화난’(怒氣, angry)을 합성한 신조어로서 허기가 져서 화가 나는 상태를 뜻한다.

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압도적 경기력으로 금메달을 딴 한국계 클로이킴이 결선 경기 직전에 쓴 글로 유명해진 말이기도 하다. 그는 “아침에 샌드위치를 안 먹고 왔더니 지금 ‘배고파 화가 난다’(Hangry)”라고 트위터에 올렸었다.

관련 학계 연구에 따르면 배고픔이 계속 오르고 있다. 청년물가상승률과 청년체감실업률을 합친 청년경제고통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다. 나아가 지난 2012~2016년 국내 청년층 인구 10만 명당 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전체 평균(1.6%)의 세 배에 달할 정도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15일 4조 원 규모의 ‘미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고 세대(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의 고용시장 유입 기간인 2018~2021년) 사이 18만~22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포퓰리즘’, ‘밀빠진 독에 불 붓기’, ‘지방선거용’ 등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이 실업과 물가에 지친 허기진 우리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행그리 세상’을 물려준 못난 선배 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

/박지성 서울취재본부장 jkpark@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시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